

김옥임 교수가 쓰는 **지족의 경제학** <19>

신자유주의 사상은 인간적이며, 신자유주의에 기초를 두고 자유경쟁을 촉진하는 글로벌시장경제를 확대해 나간다면 국부를 증진하여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논리는 1970년 후반 미국 경제학계의 주류가 되어 케인즈 경제학이나 신고전파 종합으로부터 '작은 정부', '자기 책임', '감세'를 축으로 하고 미니타리스트(Monetarist)나 합리적 기대파로부터 나온 것이다.

미니타리스트나 합리적 기대파의 생각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케인즈적인 경기 대책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적 부문을 비대하게 만들어 경제의 역동성을 상실시키므로 오히려 경제성장에 유해하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점차 유력한 정책사상으로 발전했고, 마침내 1981년 로널드 레이건 정권이 탄생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보면 미국의 역사도 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풍요를 만들어 낸 것은 소득격차의 '대압축'과 사회 복지정책의 확충이었는데, 그것이 지나쳤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레이거노믹스가 등장하여 미국을 다시 종전 이전의 격차사회로 되돌려 버리고 만 것이다. 이처럼 다소 장기적인 시점에서 역사를 추적하면 그 흐름이 단순 명쾌하고 자유방임정책의 전개가 미국사회를 안정시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근사한 것으로 세상의 움직임을 따라서 본다면 정말 지금이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읽어나가는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경제정책은 30년에서 40년마다 순환을 되풀이하고 그 중에서 '정부의 적절한 시장개입'이 행해진 시기에는 미국이 진정한 의미의 황금시대를 구가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순환론으로 본다면 미국의 경제정책은 반드시 개인의 자유를 우선하는 신자유주의에서 소득격차나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 '공공의 이익'에 더 큰 배려를 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08년 11월, 미국은 중산층에 대한 감세와 소득 불평등의 시정을 정책의 기동으로 내세운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이다. 그 결과 2009년 이후의 미국은 레이건 이래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흐름에서 케인즈주의적 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향후 미국에게는 복음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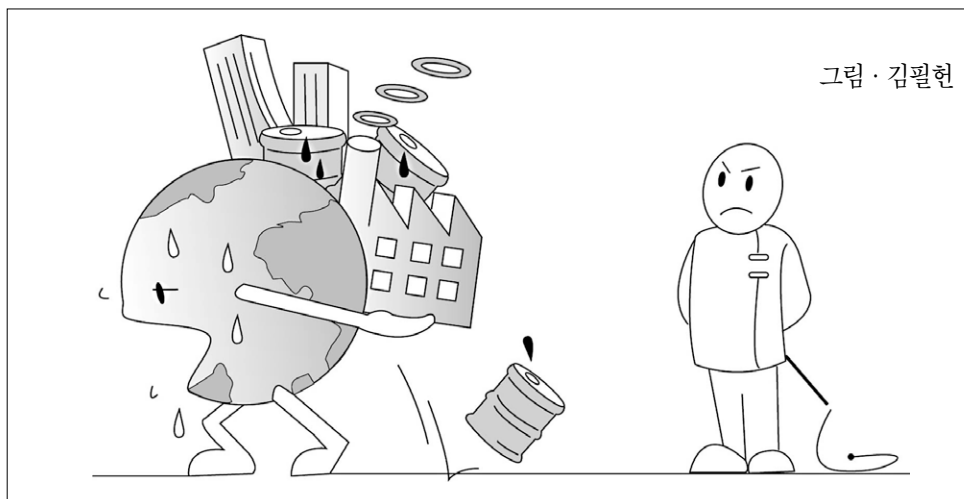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약탈자본주의의 탐욕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을 신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대로 시장을 그대로 계속 방임한다면 '자본주의체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중심의 글로벌 시장경제의 노선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문제는 이윤추구를 지상명제로 하는 글로벌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심각한 현상인 지구환경 파괴에 있다.

시장주의가 지역적인 장소에 국한되어 있었을 때는 기업 활동에 의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 주변 주민이나 소비자의 반발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

지구 환경 파괴하는 글로벌 시장주의

환경오염 악화 막기위한 적절한 규제 만들어야



여 기업의 평판이 나빠지는 등 오히려 수익을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기업에게는 공해방지나 환경보호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지역적인 환경오염은 나름대로 규제도 쉬웠고 규제의 효과도 검증하기 쉬웠던 것이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경제에서는 그런 '규제'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아무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원을 낭비해도 그것이 직접 기업경영에 마이너스로 작용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심각한 환경파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근래에 와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 환경의 파괴나 오염물질을 쏟아 내고 있는 대다수가 중국

기업일지도 모르지만, 그런 환경문제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투자가 중국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생산된 상품을 구입하고 있는 선진국의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등 신흥공업국에 대한 투자가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자본은 말할 것도 없이 이익추구가 최대의 목표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환경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 한다. 말할 것도 없이 지구 환경파괴는 적절한 환경비용을 어느 경제주체도 부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지구 환경파괴를 막으려면 환경파괴의 범위를 지구의 자정능력 범위 안에 제한해야 한다. 그 이상의 환경파괴는 지구환

경을 점점 더 악화시켜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구의 자정능력 범위 안으로 환경파괴를 억제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한 한 가지 유력한 방법은 환경질의 악화를 야기한 사태에 대한 적절한 가격에 부과하는 것이다. 아니면 환경오염 파괴를 막기 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이미 유럽 등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나라에서는 엄격한 환경규제가 강요되고 있지만, 글로벌 자본은 같은 인지도에서 좀 더 환경규제가 느슨한 지역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자본주의를 무제한 인정하면 지구환경에 대해 들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다.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글로벌 자본에게 어떤 제약의 망을 씌워야 하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대 경제학은 재생 가능한 원료와 재생 불가능한 원료를 구별하지 않는다. 경제학은 그 방법상 화폐라는 수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수량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석유, 목재, 수력 따위의 여러 가지 대체 원료의 단위당 코스트가 값싼 것이 초점이 된다. 물론 불교적 관점은 이와 다르다. 석탄이 석유처럼 재생 불가능한 원료의 목재나 수력처럼 재생 가능한 원료의 본질적 차이를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 재생 불가능한 자원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서 다루며 절약에도 세심한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배제된 행위는 지구환경에 대한 일종의 폭력이며 파괴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인동대 경제학과 교수

19 내면기행

어떤 성공한 사업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해 보았으나 결과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친구인 의사를 찾아가 통사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친구인 의사는 그가 가져온 검사 데이터를 훑어보고, 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더니 밀봉한 처방전 네 장에 순서를 매겨 내밀며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찾아가 이를 세 시간마다 순차적으로 개봉하고 거기 쓰여진 지시대로 이행하라고 일렀다.

사업가는 미심쩍은 마음을 누르고 의사 친구의 처방을 따랐다. 어릴 때 놀던 해변가를 아침 일찍 홀로 방문한 것이다.

세 시간마다 개봉한 처방전 각각에는 눈에 익은 친구의 달필로 각기 아래와 같은 글들이 쓰여져 있었다. 내면기행의 로드맵이었던 셈이다.

- "귀 기울여 들어라."
 - "과거로 돌아가 보라."
 - "삶의 동기들(Motives)을 재검토 하라."
 - "남은 걱정을 모래 위에 써라."
- 해변에서의 하루를 친구의 처방에 따라 내면기행으로 보낸 사업가는 자신의 병이 그릇된 삶의 동기, 밝혀지지 않은 자신의 정

허달의 불교와 코칭

체성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1960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아서 고든의 통찰력 있는 글 '해변에서의 하루'를 그때만 추려 요약한 것이다. 추억의 장소에 홀로 앉아, 세 시간의 들음으로부터 내면기행을 시작한다는 것이 어린 마음에 와닿았던 기억이 가물거릴다.

언젠가, 수요 일까지는 과제 수행한 결과를 보내오고 금요일에 만나 이어지는 코칭 세션을 갖기로 약속한 한 여성 고객이 "몸이 아파서 과제 수행을 못했으니 코칭 세션을 다음 주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양해를 구해왔다. 그러더니, 잠시 후 생각을 바꿔 몸과 마음이 함께 불편한 것 같으며, 이 점을 코칭 주제로 삼아 코칭 세션을 예정대로 진행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도와주는 것이 코치의 당연한 임

무라는 생각에서 승낙하고 금요일을 기다려 만나 보니, 과연 입술에 터진 열꽃 자국이며 핏색한 얼굴이 몹시 안쓰러웠다. 이런 경우 코치는 '함께 있어주기' 코칭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이다. 고객의 고유 진동수에 자신의 진동수를 맞추고, 고객이 아픔에서 도망치려 할 때 오히려 이를 붙잡아 심화하는 내면기행을 통해 이에 직면하게 하

는 동시에 그 아픔을 겪는과정, 그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는 과정에 함께 있어 주는 것이 코치의 임무이기도 하다. 소리굽쇠의 공명현상과 같이 고객과 진동수를 맞출 수만 있다면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만으로도 고객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잡았던 트로마(Trauma: 정신적 외상)의 껍질이 깨어지는 것을 얼마든지 도와 줄 수 있게 된다.

선임사관의 구멍에 따라 대오도 정연하게 발을 맞추어 행진

하던 군대가 다리를 지나가게 되었다. 선임사관이 다리 앞에 오자 갑자기 행진을 멈추게 하더니, "제갈음으로 가"라고 명령한다. 모두들 대오를 흐트러뜨리고 제각기 자유 보폭으로 걸어서 질서정연하던 대열이 금시 오합지졸 같은 모습이 되었다. 무슨 이유인지 물어보니, 다리와 같은 구조물을 지나갈 때는 이와 같이 대오를 헤쳐라 규칙적 진동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도록 야전교범에 쓰여져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강제진동'을 방지하려는 과학적 근거에서 시작된 규범이다. 구조물은 그 형태가 확정되면 일정한 고유 진동수를 갖게 되는데, 이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와 우연히 일치하는 진동수를 가진 파동이 비록 작은 규모로라도 가해지면 강제진동이라는 현상이 일어나 진동의 폭이 무한대로 커지고 결국 자체 진동의 확산에 의해 구조물이 무너진다는 법칙이다.

<중아함 아리타경>에 보면 가아(假我)의 요새, 그 성벽을 깨뜨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와 같은 비구는 이미 해자를 댄었으며, 해자를 건넌으며, 적의 요새를 깨뜨렸으며, 성문의 빛장을 풀었고, 지극한 깨달음의 거울을 곧바로 들여다 볼 수 있게 된 것이니라."

위대한 코치인 부처님이 중생의 근기에 최대한 맞춰 보내온 파동에 우리 중생이 진동수를 맞춰 공명하는 순간 일어나는 물론 깨달음의 현상을 기술한 것이다.

■ 한국코칭센터 교문

15th 현대불교신문 창간15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천태종 동해 관음성지

울릉해도사

주지 정비룡

남양 성인사 태하 삼도사
신도회장 도영국 외 신도회장 김도근 외

신도일동

경북 울릉읍 동동 584-6 TEL 054)791-2471

암,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 신장, 아토피, 기미, 검버섯 그리고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

불보살님의 가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문하셔서 상담하십시오.

경남 합천군 대명면 장단리 산 67 청강사 혜광 합장

문의 055)932-5706 016-9506-5706

사찰담보대출전문

전국가능
금리년 6.7%~

사찰거래자금대출
기타 부동산 담보대출

사찰거래가능

문의 1600-9342 019-9004-9342

모기지 24